

티베리우스 라타 박사, 구약신학, 8차시, 언약의 유지자로서의 하나님과 구원의 주시자로서의 하나님

© 2024 Tiberius Rata 및 Ted Hildebrandt

이것은 구약 신학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티베리우스 라타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8, 언약의 유지자로서의 하나님과 구원의 주시자로서의
하나님입니다.

오늘은 언약의 유지자로서의 하나님과 구원의 주시자로서의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단지 언약을 만드는 분이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그는
언약을 유지하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미 이야기했던 언약에서 세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 언약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이름, 위대한 민족, 위대한 땅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조건,
의무, 뭐라고 부르든 간에,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그
뒤를 이은 사람들이 이러한 언약 의무나 조건 중 일부를 어겼다는 것을
봅니다. 17장 1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앞에서
행하고 흠이 없어라.

아브라함은 흠이 없었을까? 아니요. 우리는 JA 샌더스가 성경 속 인물들이
도덕성의 초상화가 아니라 정체성의 거울이라고 말한 이유를 상기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들 속에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12장에서도 아브라함이 사라가 자기 누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20
장에서도 다시 거짓말을 하는 것을 봅니다. 매번 우리가 보는 것은 언약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의 혼란에 개입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비멜렉에게 나타나 아브라함이 만든 혼란에 개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언약을 맺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언약을 유지하시는 분임을 봅니다. 하나님은 밤에 꿈에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네가 죽은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아마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는 당신이 데려간 여자 때문에 그녀는 남자의 아내가 되었다고 말하고, 물론 하나님은 아비멜렉의 생명을 살려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언약을 유지하시는 한 가지 사례를 봅니다. 두 번째 사례는 할례와 관련이 있습니다.

또한 17장에서 하나님은 언약의 표징, 이 경우 할례를 말씀하십니다. 노아와의 언약의 경우 언약의 표징은 무지개였습니다. 아브라함 언약의 표징에서 언약의 표징은 할례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선택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선택 사항이 아니었고, 우리는 출애굽기 4장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구원자로 선택하신 후에, 출애굽기 3장에서 불타는 떨기나무와 관련된 에피소드에서 보듯이, 이 에피소드에서 그것을 봅니다. 4장에서 우리는 이 매우 흥미로운 구절을 읽습니다.

길에 묵는 곳에서 주님은 모세를 만나 그를 죽이려고 하셨다. 그러자 십보라가 부싯돌을 가져다가 자기 아들의 포피를 베어 모세의 발에 대며, “당신은 나에게 피의 신랑이로군요”라고 말했다. 그래서 모세는 그를 내버려 두었다.

그때 그녀는 할례 때문에 피의 신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는 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따르지 않는 것을 보고, 그런 다음 우리는 하나님이 개입하여 그를 내버려 두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전에 아브라함과 하신 것처럼 언약을 유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언약을 만드는 하나님이 아니라, 언약을 유지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을 유지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우리의 혼란에 개입하십니다.

모세 언약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십계명을 모두 살펴보고 이스라엘 자손이 이 언약을 어떻게 어겼는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두 가지 예만 제시하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고, 출애굽기 24장을 읽어보면 실제로 언약이 확정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훼께서 내가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사람들은 우리가 하겠다고 말씀하고, 우리는 순종할 것입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바로 그 후에 그들이 황금송아지를 숭배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죄는 얼마나 심각했을까요? 황금송아지의 죄는 마치 신혼여행을 가는 부부와 같고, 결혼을 성사시키는 대신 남편이 오늘 밤은 창녀와 자러 갈 거야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죄의 심각성이예요. 이게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냥 내가 그렇게 한다고 말했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가서 금송아지를 경배합니다. 하나님은 아론에게 말씀하시며, 그는 우리보다 앞서 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실제로 사람들을 멸망시키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모세가 개입했고, 모세는 백성을 위해 중재했고, 그러자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려던 일을 돌이키셨다고 말합니다. 주님은 그의 백성에게 내리겠다고 말씀하신 재앙을 돌이키셨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돌아서서 산에서 내려갔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그들이 이 언약을 어떻게 계속해서 어겼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신을 숭배하고, 기본적으로 영적 간음을

저지릅니다. 예레미야 11장에서 하나님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 언약의 일부를 어겼는지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내 말을 듣지 아니한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돌아갔고, 신들을 따라가서 섬겼느니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세운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가져오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으리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어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들에게 새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유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그것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시다시피, 돌판에 쓰인 법은 어길 수 있습니다. 양피지에 쓰인 법은 불에 태워질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왕에게 법을 주었고, 왕은 그것을 불에 던졌습니다.

하지만 율법은 마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그것을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새 언약 약속의 아름다운 점입니다. 이제 성령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율법을 기록하셔서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의 혼란에 개입하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언약을 어기더라도, 그는 언약을 유지하시는 분입니다. 아브라함의 경우에도 사실이었습니다. 모세의 경우에도 사실입니다.

다윗의 경우에는 사실입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영원한 왕권과 영원한 사랑을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 번, 대화에서, 솔로몬과 하나님의 소통에서, 몇 가지 if 절이 있었습니다. 매우 중요한 절입니다.

열왕기 상 6장 11절부터 시작합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네가 짓고 있는 이 집에 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내 법도를 따라 행하고 내 규례를 따르고 내 모든 계명을 지켜 행하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한 내 말을 네게 확실히 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 하리라 .

만약 여러분이 이 모든 if 절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8장에서 같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나타납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if 절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당신의 종 다윗을 위하여 당신의 약속하신 것을 지켜 주소서. 곧 당신의 아들들이 당신이 내 앞에서 행한 것같이 내 앞에서 행하도록 주의만 하면 이스라엘의 왕좌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 부족하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솔로몬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불행히도 솔로몬은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그런데, 11장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사실 3장에서 파라오의 딸과 결혼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훌륭한 군사 전략이죠.

문제는 이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법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열왕기 상 11장에도 있습니다. 솔로몬, 솔로몬 왕은 파라오의 딸을 포함한 많은 외국 여성을 사랑했습니다.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족속의 여인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나라들에서 나온 여인들, 너희는 그들과 혼인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혼인하지 말 것이니 이는 그들이 너희의 마음을 그들의 신들을 좇게 할 것임 이니라 . 솔로몬은 이 여인들을 사랑으로 붙잡았다. 그는 700명의 아내와 왕자, 300명의 첩을 두었다.

여기서 문제는 하나님께서 인종 간 결혼에 대해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종교 간 결혼입니다. 여기서는 그의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돌이켰다고 말합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문제는 그 사람의 민족성이 아닙니다. 문제는 이 여성들의 신앙입니다.

그리고 언약은 기본적으로 불순종으로 인해 깨졌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우리는 이 경우에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성취하고, 언약을 유지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의 아들 예수를 보내심으로써 말입니다. 다시 한번, 누가복음은 다윗에게 주어진 약속이 예수를 통해 성취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서, 누가복음 2장, 누가복음 1장은 실제로 누가복음 1장에서 마리아와의 소통으로 시작합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보라, 네가 네 태에서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위대해지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좌를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을 유지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베드로가 오순절에 설교하고 시편을 인용할 때 한 것과 똑같은 일인데, 그는 사람들에게 다윗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시키고 싶어했습니다. 시편, 이 예언들은 다윗에 대한 것이 아니라 메시아, 즉 예수님에 대한 것이었고, 그것이 바로 2장에 나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족장 다윗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는 죽고 묻혔으며 그의 무덤은 오늘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선지자로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 중 한 사람을 그의 왕좌에 앉히겠다고 맹세하신 것을 알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견하고 말하였는데, 다시 말해서 메시아를 뜻하는 그리스어 단어인 그는 하데스에 버려지지 아니하였고 그의 육신이 부패를 보지 아니하였다. 이것이 바로 예수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일이고, 우리는 모두 그 증인이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것을 보고,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유지하시는 분이다.

우리는 아브라함, 모세, 다윗의 경우에서 그것을 봅니다. 우리는 언약을 맺을 뿐만 아니라 은혜로 그것을 유지하시는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보세요, 구약에서 구원에 관해 이야기할 때, 그 용어는 먼저 죽음에서 벗어나고 적으로부터 구출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비록 그것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지 않았을지라도요. 그래서, 이것은 중요하고, 우리는 예를 들어 시편을 볼 때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구원을 구할 때, 그는 죽음으로부터의 구출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출애굽 사건 이후, 모세의 노래에서, 노래는 "주님은 나의 힘이시요, 나의 노래시니이다. 그는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라고 말합니다. 글썄요, 어떤 구원일까요? 글썄요,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바다로 가서 이집트 군대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구원은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의 직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며, 나는 그를 찬양할 것입니다.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며, 나는 그를 높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가 여기서 구원이라는 용어가 신약의 개념과 동일하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유사하다. 둘 사이에는 유사점이 있지만 동일하지는 않다. 시편 14:7. 이스라엘을 위한 모든 구원은 시온에서 나올 것이다. 사람들이 그의 백성의 재산을 회복했을 때, 야곱은 기뻐했고 이스라엘은 기뻐다.

다시, 여기서 다시, 그것은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주님은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십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 하리요 ? 다시, 그것은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예레미야 3장, 산과 산에서 우상 숭배자들이 소동하는 것은 틀림없이 속임수입니다.

확실히, 이스라엘의 구원은 주 우리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요나는 사실 시편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구원은 주님으로부터 온다고 말할 때 인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구원인가요? 그는 기본적으로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을 생각하고 있었고, 그는 그것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원에 대해 말할 때, 여기에는 또한 미래의 측면이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미래의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선지자들에게서 봅니다.

이스라엘은 주님께 의해 영원한 구원으로 구원받을 것입니다. 좋아요, 이제 우리는 죽음으로부터의 일시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구원에는 영원하고 영원한 차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영원한 시대로 모욕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사야 52장 10절. 주께서 모든 민족의 눈앞에 거룩한 팔을 드러내시리니 땅 끝까지 다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그래서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기름부음받은 자, 메시아를 사용하여 자신의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글쎄요, 신약에서 그 메시아는 기름부음받은 자, 메시아, 곧 예수입니다. 하지만 이 예수, 이 메시아에 대한 약속은 실제로 창세기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프로토-에반게리온, 첫 번째 복음 메시지라고 부릅니다.

뱀에 대한 심판의 언어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너의 후손과 그녀의 후손 사이에 적의를 두리라. 그는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압니다.

이에 대한 핵심 구절이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갈라디아서 3장 16절입니다.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많은 자손을 언급하지 않고 한 자손과 그리스도이신 당신의 자손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요한일서 3장 8절에 있습니다. 빛나기를 행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자니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이유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뱀을 으깨는 자는 바로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 예언들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비록 처음에 그것들이

그리스도를 분명히 가리키지 않더라도,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을 수 있는 이점이 있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들이 언제 성취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신약에서 분명히 봅니다.

구약성경은 또한 메시아가 사람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때때로 생각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 종은 실제로 고통받는 종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항상 그것을 얻지 못한 이유인데, 그들은 로마인을 파괴하고 나라를 해방하기 위해 올 전사 메시아를 상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사야 53장에서 우리는 다른 유형의 메시아를 보게 됩니다.

그는 어린 식물처럼,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처럼 그분 앞에서 자랐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을 바라볼 만한 모양이나 위엄이 없었고, 우리가 그분을 사모할 만한 아름다움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매일.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그분은 아니었고, 그분은 기본적으로, 그분의 얼굴은 GQ 표지에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고, 형태도 없고, 아름다움도 없었어요.

그에게는 심리적 압박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가 바리새인들과 대화할 때, 예수께서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다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세요. 그들은 당신이 50살도 안 되었다고 말합니다.

글쎄요, 우리는 그가 30대라는 걸 알지만, 그는 50대나 그쯤으로 보입니다. 보세요, 그에게는 이런 게 있고, 그가 우리가 그를 바라볼 만한 형상이나 위엄이 없고, 우리가 그를 사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다고 말할 때, 이것은 십자가 위의 예수가 아닙니다. 이것은 매일의 예수입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버림받았으며, 슬픔의 사람이요 슬픔을 아는 자요 사람들이 얼굴을 가리는 자 같았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았고 우리는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참으로 그는 우리의 슬픔을 지고

우리의 슬픔을 지셨지만 우리는 그를 하나님께 맞고 고난을 당하신 자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의 허물로 인해 상처를 입었고,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으깨졌습니다. 그에게는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주는 징계가 있었고, 그의 채찍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가져다줄 것이며, 결국에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에게 많은 자와 함께 몫을 나누어 주고 그는 강한 자와 함께 전리품을 나누리니 이는 그가 자기 혼을 죽음에 쏟았고 범죄자들과 함께 세어졌음이니라 그러나 그는 많은 자의 죄를 지고 범죄자들을 위해 중보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메시아는 구원을 가져올 것이다. 메시아는 겸손하고 구원을 가져올 것이다.

예수께서 소위 승리의 입성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복음서 저자들은 스가랴서에서 인용합니다. 시온의 딸아, 크게 기뻐하라! 예루살렘의 딸아, 외쳐라! 너희 왕이 너희에게 임하심을 보라. 그는 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온유하시며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 새끼 곧 나귀의 새끼니라.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예수에게 왕이라는 칭호가 작용함을 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메시아라는 용어는 사람을 야훼로부터 공인받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직위에 임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메시아라는 단어는 마샤흐 에서 유래되었는데 , 이는 더럽히거나 기름을 바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문자 그대로 기름부음을 받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신약성서에서 그리스도라는 단어인 크리스토스는 메시아의 그리스어 버전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때마다 문자 그대로 예수 메시아이며, 그리스어 버전과 마찬가지로입니다. 따라서 동사 자체는 다시 기름을 바르거나 번지게 하는 것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제사장이나 왕에게 기름을 바르는 기름 부음의 개념에서 유래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군주제 이전과 이후의 구약 시대 전반에 걸쳐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메시아라는 용어는 제사장과 레위기를 지칭하는데 네 번 사용되었습니다. 제사장은 기름부음을 받았으므로 어떤 면에서는 메시아였습니다.

사무엘 상하에서 왕족 개인에게 18회 적용되었으며, 이 구절의 절반에는 Mashiach Adonai, 기름 부음받은 자 또는 주님의 메시아, 또는 주님의 기름 부음받은 자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물론 역대기에는 2회, 후기 선지서에는 5회입니다. 전자에는 선지서가 25회 나타납니다.

모든 구절은 왕들의 기름 부음에 대해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후기 예언서에서 다섯 번이나 말했습니다. 이사야는 기름 부음받은 자를 지칭하기 위해 동사를 사용했고, 다니엘은 70주간의 목적을 설명하기 위해 동사를 사용했는데, 그 목적은 지극히 거룩하신 자의 기름 부음을 위한 시간을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기름부음의 전체 현상을 언급할 때, 지명, 선택 또는 선거의 행위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왕의 기름부음, 선지자의 기름부음, 제사장의 기름부음은 때때로 헌신이나 따로 구별됨을 말합니다. 기억하세요,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고 그의 종들은 "야, 네가 그를 죽일 수 있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말합니다. 글쎄요, 저는 주님의 기름부음받은 자, 즉 주님의 메시아를 건드리지 않을 겁니다. 그는 따로 구별되었습니다. 저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동사는 권위를 부여하거나 부여하는 것을 가리킨다. 선출된 자들은 특정한 임무를 맡았다. 다시 말해서, 왕들은 통치할 권위를 가졌다.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부어 제사장으로서의 임무를 부여하고, 예언적 직분의 권위는 엘리야에서 엘리사로의 권능의 이전에서 볼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구원의 수여자로서 메시아이신 예수를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족보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 14대, 다윗에서 유배까지 14대, 유배에서 그리스도까지 14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리스어 그리스도는 히브리어로 메시아, 기름부음받은 자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사이먼은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대답합니다.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그는 자신이 말하는 것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거나, 예수가 어떤 종류의 메시아일지 정말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때 베드로가 예수가 로마인을 파괴하기 위해 올 전사라고 여전히 생각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가 그들에게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죽을 것이라고 말했을 때, 베드로는 안 돼,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예수는 내 뒤로 물러가, 사탄아.

방금 “당신은 살아 계신 자의 그리스도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말한 사람에게 얼마나 가혹한 말을 했을까요. 베드로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우물가의 여인과의 사건 이후에 예수는 하나님은 영이시며, 그의 경배자들은 영과 진리로 경배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인이 말했습니다. 나는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가 오면 그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설명해 줄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말하는 내가 그이다.

일부 학자들은 메시아의 비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예수는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몰랐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글썄요, 이 구절들은 그것과 모순됩니다. 예수는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온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메시아는 실제로 구원을 가져다줍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으며, 메시아 예수를 통해 온 구원으로 그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고 썼습니다. 로마서에서 흥미로운 점은 때때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때때로 그리스도 예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때로 우리는 왜 그럴까 궁금해합니다. 그저 문체 때문일까요? 글썄요, 로마 교회는 유대인 신자와 이방인 신자로 나뉘어 있었고, 때때로 바울은 예수를 메시아라고 말하고, 때때로 메시아 예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에 관해 말하는 방식으로 교회를 하나로 묶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메시아는 죄에 대한 용서와 영생을 줍니다. 하나님의 샅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영생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브레바드 차일즈의 이 인용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통적인 기독교 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이스라엘의 메시아의 관계는 거의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하여 구약 전체가 왕과 구세주의 오심을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나사렛 예수에게서 성취되었습니까? 그것은 수사적 질문입니다. 물론 그는 예수에 대해 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2005년에 제가 처음으로 이스라엘에 갔을 때, 랍비가 와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우리는 질문을 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그에게 이사야 53장에 대해 물었고, 그들이 예수가 메시아라고 받아들이는지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메시아는 일종의 열반과 같은 마음의 상태라고요. 그래서 매우 흥미로운데, 왜냐하면 당신이 예수를 사람으로 거부하면, 당신은 그것을 다른 방식으로 해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음, 좋아요, 그럼 성전 없이 어떻게 죄를 속죄할 수 있나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실제로 우리를 호세아서로 보냈습니다. 호세아서 14장, 매우 흥미로운

구절이었습니다. 호세아서 14장 2절에,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라”고 말씀합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 하고 , 좋은 것을 받아들이라, 그러면 우리는 황소로 입술의 서원을 갚으리라. 그래서 그는 말한다, 이제 우리는 입술의 서원으로 우리의 죄를 속죄한다. 편리하지 않은가? 제사도 없고, 피도 흘리지 않는다.

하지만 성경은 피를 흘리지 않고는 죄의 용서가 없다고 말합니다. 예수는 구세주입니다. 질문은, 예수가 당신의 구세주인가? 그것이 질문입니다.

이것은 구약 신학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티베리우스 라타 박사입니다. 이것은 8번째 세션, 언약의 유지자로서의 하나님과 구원의 주시자로서의 하나님입니다.